제50호(2018. 7. 18.)

FTA 발효 이후 수요가 급증한 농축산물 현황과 시사점

지성태 염정완 박수연 김경호

목 차
contents

1. 농축산물 수입 개요 ····· 1

2. 품목별 수입 증가 원인 분석 ····· 3

3. 시사점 ·····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정민국 부원장	061-820-2011	mkjeong@krei.re.kr
내 용 문 의	지성태 부연구위원	042-825-9551	dongsimjst@krei.re.kr
자 료 문 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50호

FTA 발효 이후 수요가 급증한 농축산물 현황과 시사점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8. 7.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요 약
Summary

○ **2011년 이후 농축산물 수입액은 증감을 반복하며 다소 정체된 가운데 수입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2011~2017년 농축산물 수입액은 310억 ~336억 달러 구간에서 증감을 반복하였지만, 동 기간 수입량은 4,500만 톤에서 5,344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품목별로 살펴보면 기존에 비대중적이었던 일부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농축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

○ **쇠고기 신선고급육은 '쿡방' 등의 영향에 따른 소비패턴 다변화와 수입산 가격경쟁력 강화로 미국산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함.**

- 2013~2017년 전체 쇠고기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8.3%이고, 동 기간 쇠고기 신선고급육의 경우 연평균 20.6% 증가함.

○ **양고기는 조리방법 다양화 및 전문식당을 통한 국내 소비자 취향 공략 등에 따른 소비시장 확대로 수입이 급증함.**

- 2013~2017년 양고기 수입량은 4,290톤에서 1만 5,028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36.8%의 증가율을 기록함.

○ **아보카도는 전 세계적으로 웰빙푸드로 각광을 받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에 편승한 소비 증가로 수입이 급증함.**

- 2010~2017년 아보카도 수입량은 457톤에서 5,979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44.4%의 증가율을 보임.

○ **레몬은 체내 해독요법으로 레몬 디톡스가 주목을 받고 레몬을 활용한 식품이 보편화되면서 수입이 증가함.**

- 2010~2015년 레몬 수입량은 5,631톤에서 1만 7,793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5.9%의 증가율을 기록함.

○ **아로니아는 영양분이 풍부한 천연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폴란드산 분말 형태로 수입이 급증함.**

- 2014년 2톤에 불과했던 아로니아 분말 수입량은 2017년 520톤까지 증가함.

○ **브라질너트는 항암 작용과 만성피로 해소 효과에 대한 기대로 국내 소비가 증가하여 수입이 폭증함.**

- 2013년 3톤에 불과했던 브라질너트 수입량은 2017년 2,475톤까지 증가하며 국내 견과류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등극함.

○ **최근 소득수준 향상과 외국 식문화 관련 정보 공유 등으로 다양한 식생활 패턴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고,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비대중적이었던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이는 농축산물 수입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 생산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수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01 농축산물 수입 개요[1)]

최근 농축산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수입액은 증감을 반복하며 다소 정체

1.1. 전체 수입 동향

□ **2011년 이후 농축산물 수입액은 증감을 반복하며 다소 정체된 가운데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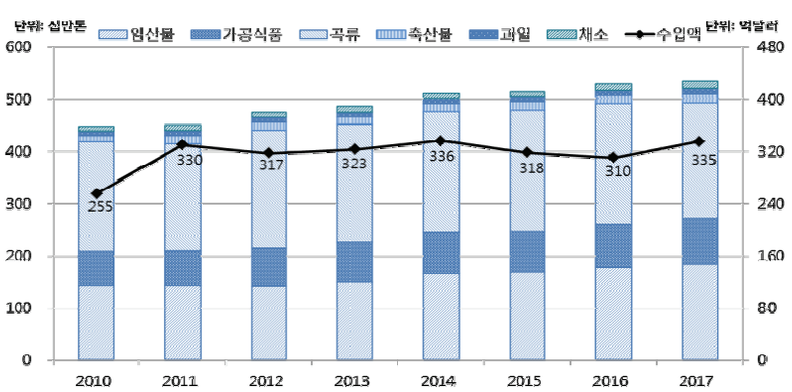
○ 2011~2017년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은 310억~336억 달러 구간에서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2017년 335억 달러를 기록하며 다소 회복되는 기미를 보임.

- 2011년 한 · EU FTA부터 2012년 한 · 미 FTA, 2015년 한 · 중 FTA, 한 · 영연방 FTA에 이르기까지 주요 FTA가 집중 발효되었음에도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크게 가시화되지 않음.

○ 한편, 동 기간 전체 농축산물 수입량은 4,500만 톤에서 5,344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부류별로 살펴보면, 수입량 비중이 작은 축산물, 과일, 채소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남.
- 2011~2017년 축산물, 과일, 채소 수입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9%, 6.1%, 6.0%임.

〈그림 1〉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 동향



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교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1) 농축산물 수출 실적은 3,068개 HSK코드 기준으로 교역통계를 집계함.

수입량이 급증한 농축산물 중 기존에 비대중적이었던 품목도 포함되어 수입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2. 부류별 수입 동향

□ **국내 농축산물 소비패턴 다양화, 소비 트렌드 형성, 수입가격 변화 등의 요인에 따라 대중적 품목 외에도 비대중적인 품목의 소비 급증이 수입량 변화에 영향을 미침.**

○ 2010~2017년 전체 과일 수입량이 82만 톤에서 124만 톤으로 증가하여 6.1%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으며, 신선과일 수입이 이를 주도함.

- 동 기간 신선과일 수입량은 22만 톤에서 41만 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9.5%였고, 가공과일의 경우 4.7%에 그침.
- 수입이 급증한 과일 중에는 아보카도, 레몬, 망고스틴, 아로니아(분말), 브라질너트 등의 비대중적 품목도 포함됨.

○ 2010~2017년 전체 축산물 수입량은 126만 톤에서 175만 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4.9%였고, 양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순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임.

- 양고기 수입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동 기간 수입량이 4천 톤에서 1만 7천 톤으로 증가하여 21.9%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냄.
- 돼지고기 수입량은 구제역 발생으로 2011년 52만 톤까지 증가했다가 2013년 32만 톤으로 감소한 이후 연평균 13.4%로 증가하여 2017년 53만 톤을 기록함.
- 쇠고기 수입량은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반입이 금지되었던 미국산 수입이 2008년 재개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2010~2017년 쇠고기 전체 수입량은 29만 톤에서 41만 톤으로 증가하여 5.1%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

〈표 1〉 전체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량 추이

단위: 천 톤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가공식품	6,708	6,927	7,460	7,668	7,885	7,749	8,273	8,670
곡류	21,003	20,464	22,610	22,606	23,132	23,238	23,126	22,172
과일	821	923	1,010	964	975	1,030	1,125	1,244
신선과일	219	246	264	281	283	305	365	412
가공과일	602	677	746	683	692	724	760	832
채소	891	1,041	1,029	1,039	939	1,171	1,174	1,338
축산물	1,255	1,625	1,457	1,357	1,493	1,611	1,675	1,751
돼지고기	306	524	403	322	394	494	502	533
쇠고기	292	344	299	301	315	331	403	414
닭고기	106	131	130	127	141	119	128	132
양고기	4	5	5	5	7	9	12	17
임산물	14,070	14,024	13,912	14,874	16,540	16,754	17,592	18,263

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교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02 품목별 수입 증가 원인 분석

소비패턴 다변화와 가격경쟁력 강화로 미국산 쇠고기 신선고급육 수입 증가

2.1. 쇠고기 신선고급육

□ 최근 쇠고기 신선고급육(02013000000, 0206100000) 수입이 미국산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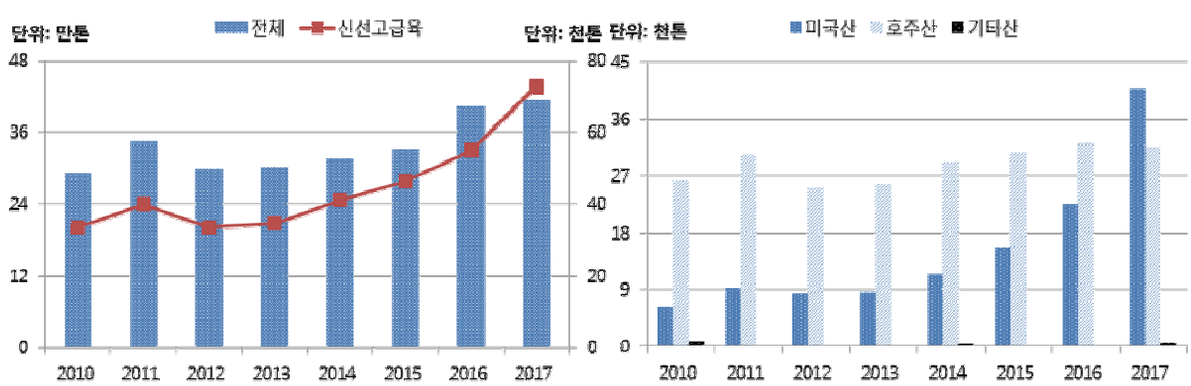
○ 쇠고기 신선고급육 수입이 전체 쇠고기 수입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임.

- 2013~2017년 전체 쇠고기의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8.3%이고, 동 기간 쇠고기 신선고급육의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20.6%임.

○ 쇠고기 신선고급육은 대부분 미국과 호주에서 수입되며, 최근 미국산 수입 급증

- 2013~2017년 미국산 쇠고기의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10.8%이고, 동 기간 미국산 쇠고기 신선고급육의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47.7%임.
- 2017년 미국산 쇠고기 신선고급육 수입량은 4.1만 톤을 기록하며 호주산(3.2만 톤)을 능가함.

〈그림 2〉 쇠고기 신선고급육의 수입 동향 및 원산지별 수입 추이



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교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 쇠고기 신선고급육 수입이 증가한 원인은 국내 소비자의 수입쇠고기 소비패턴이 다변화하였고, 관세율 인하 및 국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상의 비교우위 때문

○ 쇠고기 소비패턴 다변화와 수입쇠고기에 대한 선호도 상승으로 신선고급육 수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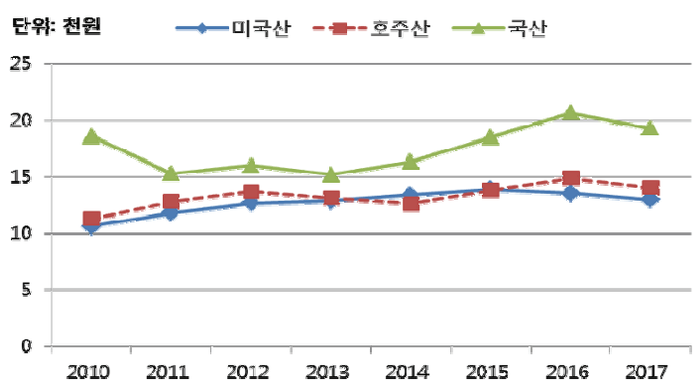
- 요리 관련 TV프로그램(일명 '쿡방')을 통해 가정 내 스테이크용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선호

소비패턴 다양화와 수입가격 안정화에 따라 호주산 양고기 중심으로 수입 급증

○ 한우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FTA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2]로 수입쇠고기의 가격이 정체되는 경향을 보임.

- 2013년 이후 한우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 신선고급육 가격과의 격차가 확대됨.
- 동 시기 호주산 쇠고기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가격이 하락한 미국산 쇠고기는 관세율 인하로 가격경쟁력이 더욱 강해짐.

〈그림 3〉 미국산, 호주산 쇠고기 신선고급육 수입가격과 국산 쇠고기 도매가격 비교



주 1)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 신선고급육(0201300000) 가격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수입단가(CIF)에 한국은행의 환율과 연도별 관세율을 적용하여 환산함.
2) 국산 가격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한우고기 1+A 등급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함.

2.2. 양고기

□ 2013년 이후 호주산 냉동 양고기를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냉장 양고기 수입도 급증

○ 2013~2017년 전체 양고기 수입량은 4,290톤에서 1만 5,028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36.8%의 증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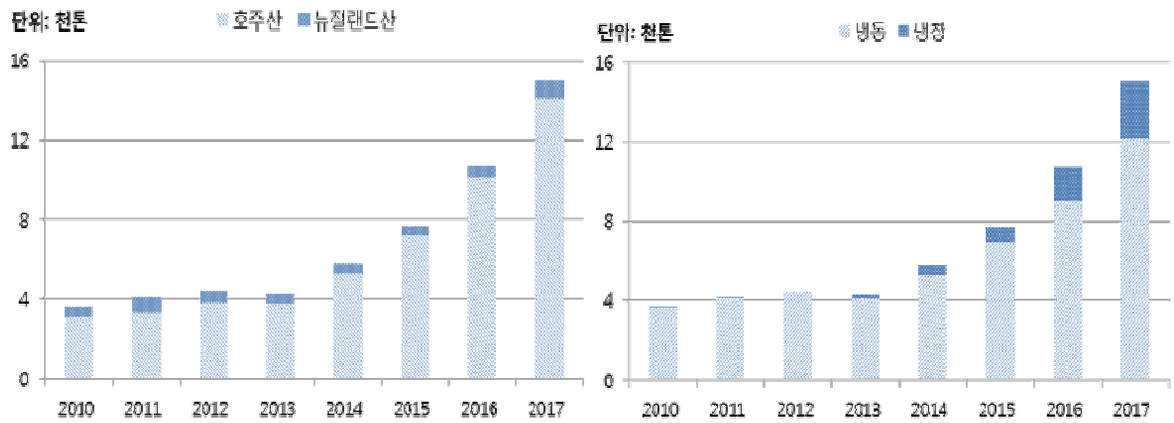
- 2017년 전체 양고기 수입량 중 호주산의 비중은 93.7%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뉴질랜드산임.

○ 2013~2017년 냉동 양고기 수입량은 4,102톤에서 1만 2,138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8.8%의 증가율을 보임.

- 동 기간 냉장 양고기 수입량은 187톤에서 2,891톤으로 연평균 91.2% 증가

2)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 신선고급육(0201300000 기준)에 대한 기준세율(40%)은 모두 FTA 발효 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2017년 기준 협정관세율은 각각 24%와 29.3%임.

〈그림 4〉 양고기 원산지별 · 형태별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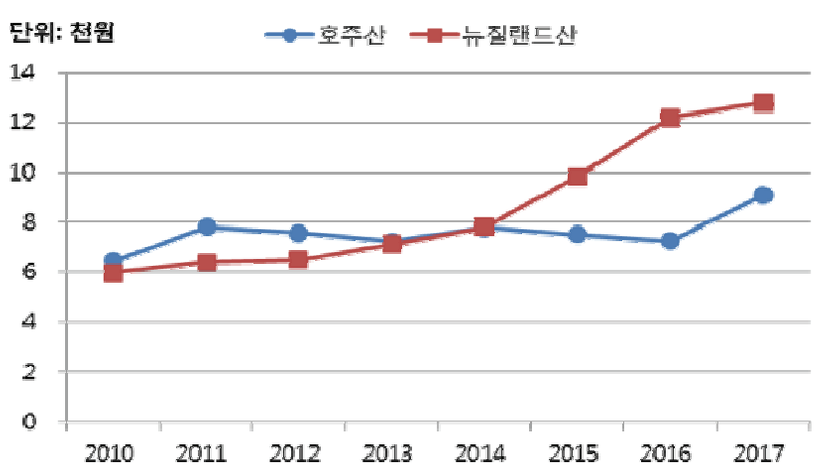
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교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 **양고기 수입이 증가한 원인은 국내 소비자의 양고기 소비패턴이 다양화되었고, 호주산 수입가격이 안정화되었기 때문**

○ 조리방법이 '양꼬치' 중심에서 철판구이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소비층이 확대됨.

- 양고기 취급 식당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문화됨으로써 조리법과 품질이 표준화되고 국내 소비자의 취향을 공략함으로써 소비시장 확대로 이어짐.
- 특히, 양고기 특유의 냄새를 최소화하여 소비자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신선고급육 수입 증가가 이를 방증함.

〈그림 5〉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양고기 수입가격 추이



주: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양고기(0204230000, 0204220000, 0204410000, 0204300000, 0204420000, 0204430000, 0204100000) 가격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국별 수입단가(CIF)에 한국은행의 환율과 연도별 관세율을 적용하여 환산함.

아보카도가 전 세계적으로 웰빙푸드로 각광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소비 급증

○ 2017년 호주산 양고기 수입가격이 전년 대비 30.8% 상승했지만, 그 이전에는 수입단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FTA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효과[3]로 수입가격이 정체됨.

- 2011~2016년 호주산 양고기 수입가격은 관세 인하가 반영되어 kg당 7,200~7,700원 수준을 유지함.
- 한편, 동 기간 뉴질랜드산 양고기 수입가격은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kg당 6,300원에서 1만 2,700원으로 상승함.

2.3. 아보카도

□ 최근 아보카도 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수입선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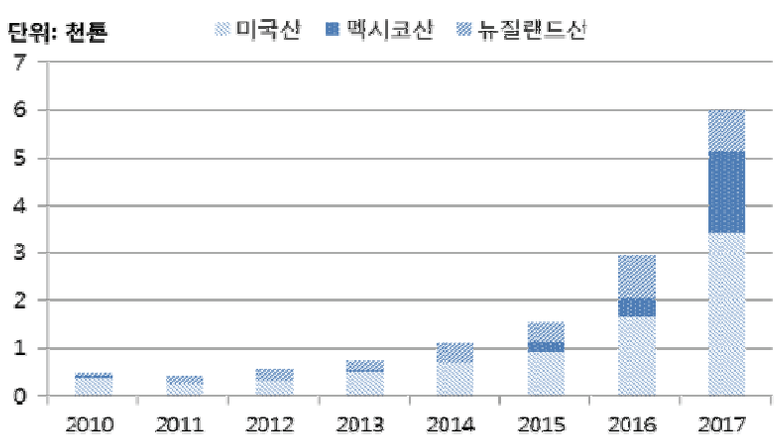
○ 2010년 아보카도 수입량은 457톤에 불과했으나 2017년 5,979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44.4%의 증가율을 보임.

- 특히, 2015~2017년 아보카도 수입은 매년 배 가까이 급증하는 추세가 나타남.

○ 아보카도 수입이 급증하면서 수입선이 미국과 뉴질랜드 중심에서 멕시코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2017년 기준, 아보카도 전체 수입량 중 미국산의 비중은 56.6%를 차지했고, 멕시코산과 뉴질랜드산의 비중은 각각 28.8%와 14.7%임.

〈그림 6〉 아보카도 원산지별 수입 추이



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교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3)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양고기(0204420000 기준)에 대한 기준세율(22.5%)은 모두 FTA 발효 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2017년 기준 협정관세율은 각각 13.5%와 15.7%임.

□ 아보카도 수입이 급증한 주요 원인은 웰빙푸드로 각광을 받으면서 다양한 패턴으로 소비되고 있기 때문

○ 아보카도는 당분이 낮고 미네랄, 칼륨,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미국 타임(Time)지에서 '슈퍼푸드'로 선정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비 증가

- 2010~2016년 전 세계 아보카도 수입량은 연평균 13.5%의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증가함.
- 2016년 전 세계 아보카도 수입량은 약 190만 톤이며, 미국 수입량은 82만 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43.2%를 차지하고, 그 외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중국 등이 주요 수입국임.
- 아보카도 최대 수출국은 멕시코로 전체 수출량의 50.7%(2016년 기준)를 차지하고, 그 외 주요 수출국은 칠레, 페루,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등임.

〈표 2〉 전 세계 주요 국가별 아보카도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미국	345	415	503	572	729	867	821
프랑스	93	89	95	100	119	116	134
네덜란드	84	89	95	115	143	144	186
일본	45	37	59	60	58	58	74
캐나다	36	36	49	57	61	70	78
중국	0	0	0	1	4	16	25
세계 전체	887	936	1,110	1,261	1,537	1,757	1,899

주: UN comt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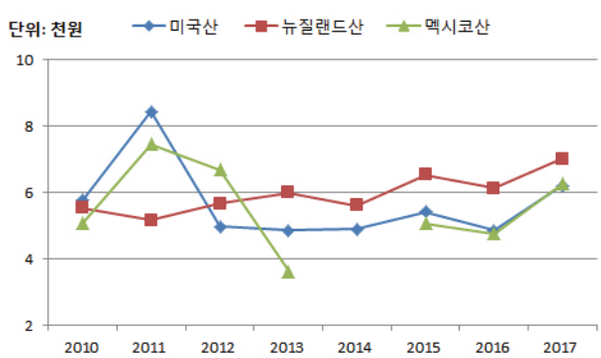
○ 국내에서는 아보카도가 외식용 식자재와 가정용 음식 재료 등 다양한 용도로 소비되고 있음.

- 샐러드, 버거, 스무디, 멕시코 요리(과카몰리) 등 외식용 식자재 외에 가정에서 다이어트 및 건강식을 위한 식재료로 사용됨.

○ 한 · 미 FTA 발효로 기준관세율(30%)이 이행 2년차인 2013년에 철폐되어 미국산 아보카도 수입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수입 증가로 이어짐.

- 한편, 뉴질랜드산 아보카도의 수입가격은 2015년 한 · 뉴질랜드 FTA 발효로 기준관세율이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상황에서 미국산보다 높은 수준이고, FTA를 체결하지 않은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아보카도 수입가격보다도 높게 형성됨.

〈그림 7〉 아보카도 원산지별 수입가격 추이



주: 미국산, 뉴질랜드산과 멕시코산 아보카도(0804400000) 가격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국별 수입단가(CIF)에 한국은행의 환율과 연도별 관세율을 적용하여 환산함.

체내 해독요법으로 레몬 디톡스가 주목을 받고
레몬을 활용한 식품이 보편화되면서 수입 수요 증가

2.4. 레몬

□ 최근 레몬 수입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2010~2015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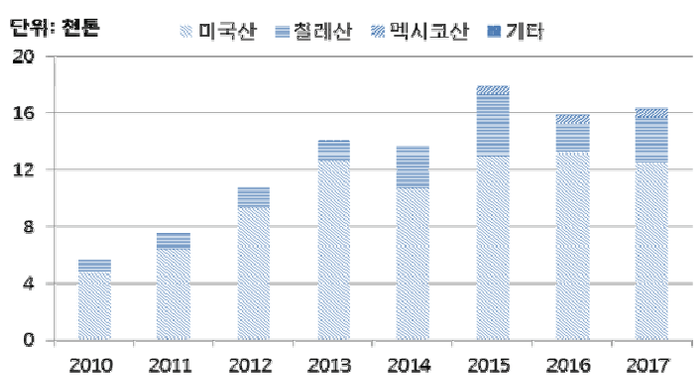
○ 2010년 레몬 수입량은 5,631톤에 불과했으나 2015년 1만 7,793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5.9%의 증가율을 보임.

- 그러나 2016년 수입량이 1만 5,823톤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 1만 6,234톤까지 회복됨.

○ 레몬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입선이 미국과 칠레 중심에서 점차 멕시코, 뉴질랜드, 베트남 등으로 확대됨.

- 그러나 여전히 미국산과 칠레산 레몬의 비중이 크며, 2017년 기준 미국산과 칠레산의 비중은 각각 76.4%와 19.8%임.

〈그림 8〉 레몬 원산지별 수입 추이



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교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 전 세계적으로 레몬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체내 해독요법으로 레몬 디톡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수입이 증가

○ 2010~2016년 세계 전체 레몬 수입량은 연평균 3.9%로 증가

- 2016년 기준 세계 전체 레몬 수입량은 272만 톤이며, 미국,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 중국 등이 주요 수입국이고, 그중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레몬 수입량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

- 레몬 주요 수출국은 멕시코, 스페인, 터키,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등이며, 2016년 기준 전체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2%, 17.3%, 14.3%, 8.9%, 7.5%, 6.4%임.

〈표 3〉 전 세계 주요 국가별 레몬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미국	400	420	479	487	503	595	383
러시아	215	227	203	210	209	200	192
독일	138	148	149	155	153	172	177
네덜란드	154	133	155	155	154	163	198
영국	104	108	108	116	118	137	148
중국	8	8	9	9	30	15	12
세계 전체	2,171	2,217	2,375	2,500	2,584	2,821	2,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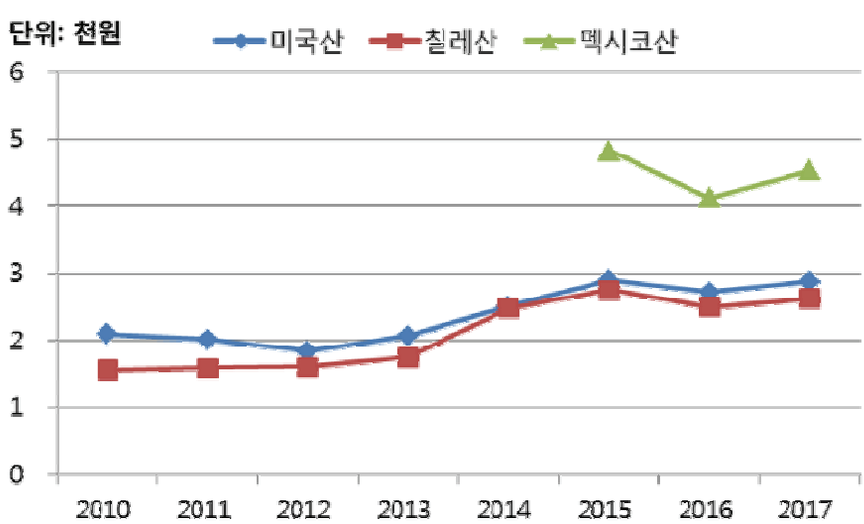
주: UN comtrade.

○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레몬 소비가 증가하는 원인은 '디톡스(Detox)'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즉, 체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레몬 워터를 마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 레몬 워터 외에도 국내에서는 레몬청, 레몬즙 등 레몬을 활용한 식품이 보편화되면서 가정용 소비가 증가

○ 전 세계적으로 레몬 수요가 증가하면서 레몬 수입가격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FTA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4]로 미국산과 칠레산 레몬의 수입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임.
- 미국산과 칠레산 레몬의 수입가격은 비슷한 수준이며, FTA 미체결국인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레몬 수입가격은 미국산과 칠레산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2015년부터 수입되기 시작함.

〈그림 9〉 레몬 원산지별 수입가격 추이



주: 미국산, 칠레산과 멕시코산 레몬(0805501000) 가격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국별 수입단가(CIF)에 한국은행의 환율과 연도별 관세율을 적용하여 환산함.

4) 미국산과 칠레산 양고기(0805501000 기준)에 대한 기준세율(30%)은 각각 FTA 발효 후 2년과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2017년 기준 협정관세율은 모두 0%임.

아로니아가 천연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폴란드에서 분말 형태로 집중 수입

2.5. 아로니아(분말)

□ **2015년부터 아로니아 분말 수입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입선이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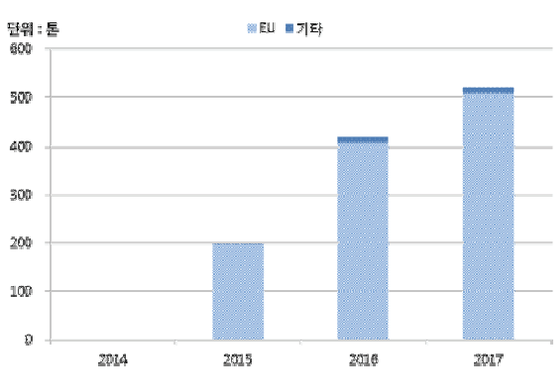
○ 2014년 아로니아 분말 수입량은 약 2톤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200톤이 수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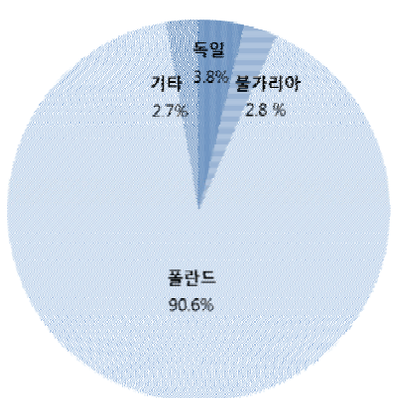
- 2016년 수입량은 420톤으로 전년 대비 배 이상 증가했고, 2017년 수입량은 520톤을 기록함.

○ 아로니아 분말은 대부분 폴란드에서 수입되며, 수입 증가와 더불어 수입선이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미국, UAE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 2017년 기준, 아로니아 분말 전체 수입량 중 폴란드,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독일을 포함한 EU 회원국들로부터 수입 비중은 98.0%에 달했고, 폴란드산 비중이 88.7%로 집중도가 여전히 높음.
- EU산 아로니아 분말 중 90.6%가 폴란드산이고, 독일산과 불가리아산은 각각 3.8%와 2.8%에 불과함.

〈그림 10〉 아로니아(분말) 수입대상국별 수입 추이와 수입대상국별(EU) 수입 비중(2017년)





주: 동식물위생검역 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브라질너트의 항암 작용과 만성피로 해소 효과에 대한 기대로 국내 소비가 증가하여 수입 폭증

□ **'왕의 열매'라고 불리는 아로니아는 최근 국내 소비자들에게 영양분이 풍부한 천연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소비가 급증함.**

○ 아로니아는 항산화, 체내 노화 방지, 순환기 질환 예방, 천연 항균제,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 대표적인 기능성식품으로 소비됨.

- 수입 아로니아 분말은 주로 홈쇼핑,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거나 식품가공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 주요 수입대상국과 FTA 체결로 아로니아 분말[5]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되어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남.

- 2011년 한 · EU FTA 발효 즉시 아로니아 분말에 대한 기준세율(8%)이 즉시 철폐되어 폴란드, 독일, 불가리아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EU산은 무관세 적용
- 단, 수입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5년으로 관세 철폐효과보다 소비 확대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예상
- 미국산과 캐나다산 아로니아 분말에 대한 관세율도 FTA 발효 즉시 철폐되었고, 중국산과 뉴질랜드산에 대해서는 각각 15년과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

〈표 4〉 기 체결 FTA 아로니아 분말 관세 스케쥴

단위: %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기본관세	8.0	8.0	8.0	8.0	8.0	8.0	8.0	8.0
EU	8.0	0.0	0.0	0.0	0.0	0.0	0.0	0.0
미국	8.0	8.0	0.0	0.0	0.0	0.0	0.0	0.0
캐나다	8.0	8.0	8.0	8.0	8.0	0.0	0.0	0.0
중국	8.0	8.0	8.0	8.0	8.0	7.4	6.9	6.4
뉴질랜드	8.0	8.0	8.0	8.0	8.0	6.8	5.7	4.5

주: 기 체결 FTA 국가별 협정문.

2.6. 브라질너트

□ **2015년까지 브라질너트는 소량 수입되었으나, 2016년부터 수입이 급격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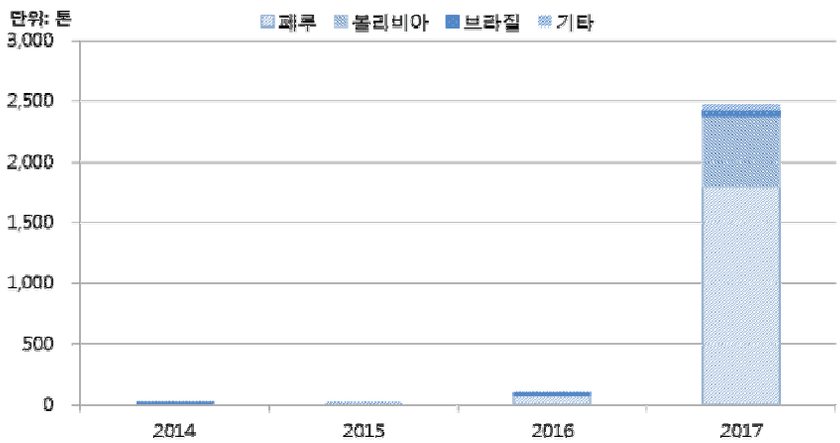
○ 2013년 3톤에 불과했던 브라질너트 수입량은 2017년 2,475톤까지 증가하며 국내 견과류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등극

5) 아로니아 분말은 과실류의 분, 조분(1106300000)으로 분류되어 수입됨.

- 2014년과 2015년 각각 24톤과 19톤을 기록한 브라질너트 수입량은 2016년 103톤으로 증가했고, 2017년 수입량은 전년 대비 20배 이상 증가

○ 브라질너트가 소량 수입되었던 2015년까지 대부분 브라질에서 수입되었으나, 수입량 급증과 함께 수입선이 다변화되는 가운데 페루산 수입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2017년 기준 전체 수입량에서 페루산의 비중이 72.3%로 가장 컸고, 볼리비아산이 23.5%이고, 브라질산, 미국산, 칠레산의 비중은 각각 1.7%, 1.7%, 0.7%에 불과함.

〈그림 11〉 브라질너트 수입대상국별 수입 추이



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교역통계를 기초로 저자 작성.

□ **브라질너트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현대인의 불치병인 암을 예방하고 만성피로를 해소해주는 슈퍼푸드로 인식되면서 국내 소비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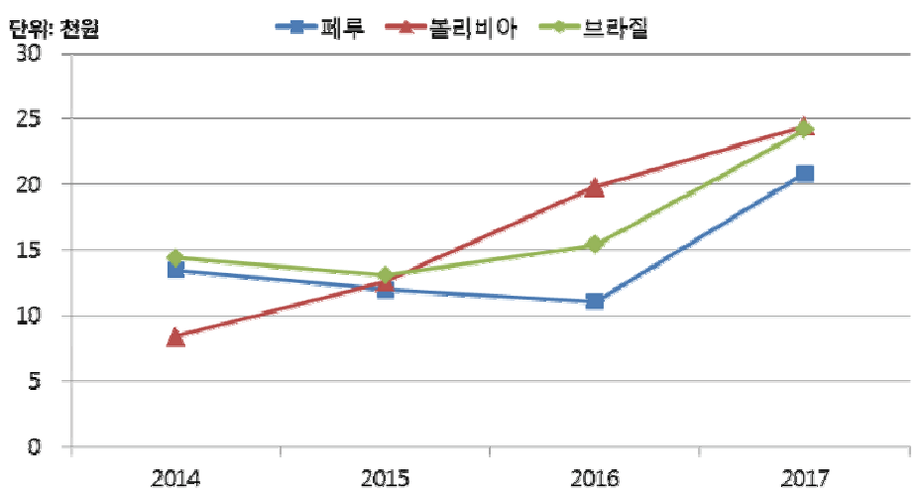
○ 브라질너트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선정한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인 셀레늄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고, 미국 USDA 등록 식품 중에서도 셀레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

○ 브라질너트 주산지는 남미 지역(아마존)으로 수출국 대다수가 남미국가이며,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도 주요 수출국임.
- 2016년 세계 전체 수출량은 4만 1천 톤이고, 그중 60.3%가 볼리비아산이며, 페루산은 13.4%를 차지함.
- 브라질너트 주요 수입국은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등이며, 그중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수입국인 동시에 수출국이므로 수입한 브라질너트를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것으로 추정됨.

○ 최근 브라질너트의 수입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임.

- 2017년 볼리비아산과 브라질산 브라질너트 수입가격은 kg당 약 2만 4천 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페루산은 FTA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효과로 상대적으로 낮은 약 2만 1천 원 수준에서 수입가격이 형성됨.
- 한 · 페루 FTA 이행으로 기본세율 30%가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2017년 6%가 적용되었으며, FTA 비체결국인 볼리비아와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브라질너트에는 30%의 관세율이 적용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루산 브라질너트 수입가격은 전년 대비 88.2% 상승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볼리비아산과 브라질산 수입가격은 각각 23.2%와 57.3% 상승함.

〈그림 12〉 브라질너트 원산지별 수입가격 추이



주: 페루산, 볼리비아산, 브라질산 브라질너트(0801220000) 가격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국별 수입단가(CIF)에 한국은행의 환율과 연도별 관세율을 적용하여 환산함.

03 시사점

비대중적 농축산물의 수입 급증이 장기간 지속되기도 하고 일시적 '붐'으로 끝나기도 하며, 심지어 국내 농업 생산구조를 변화시키는 파급력을 갖기도 함

□ **최근 수입단가가 하락하고 수입품목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수입액 기준만으로 전체 농축산물 수입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실제로 2011~2017년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은 310억~336억 달러 구간에서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동 기간 농축산물 수입량은 4,500만 톤에서 5,344만 톤으로 연평균 2.9%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 품목별로 살펴보면 기존에 비대중적이었던 일부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농축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함.

□ **기존에 비대중적이었던 품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수입 급증으로 이어지고 전체 소비가 증가하여 대중화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 방송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유명인의 간접광고, '쿡방' 등을 통한 특정 농축산물 소비가 이슈화되고 트렌드화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소득수준 향상과 외국 식문화 관련 정보 공유 등으로 다양한 식생활 패턴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으로써 새로운 식자재 수요가 증가함.

○ 이와 함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 웰빙식품, 기능성식품, 슈퍼푸드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

○ 결국 기존에 소비량이 극히 적었거나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이는 수입 수요 증가로 이어져 소비량도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대중적인 소비품목으로 등극하기도 함.

○ 해당 품목이 FTA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경우 수입가격 하락 혹은 안정화로 수입이 더욱 촉진되기도 함.

□ **비대중적 품목의 수입 급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대중적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하고 일시적 '붐'으로 끝나기도 하며, 이는 국내 농업 생산구조를 변화시키는 파급력을 갖기도 함.**

○ 예를 들어, 여성의 과일로 불리는 석류가 감기 예방, 갱년기 장애 예방, 다이어트 효과 등의 기능성식품으로 알려지면서 2013년을 전후하여 수입이 급증하였으나 이후 수요가 줄면서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블루베리가 미국 타임지의 '슈퍼푸드'로 선정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국내에서도 소비가 증가하여 수입이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체 생산규모도 급격하게 확대됨으로써 국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 결국 2016년 폐업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어 전체 재배농가의 약 10%가 폐원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블루베리 수입량도 감소세를 보임.

○ 블루베리와 같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과 직접적으로 경합하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대체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간접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국내 농식품 소비구조와 농업 생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러한 특정 품목의 소비 및 수입 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내외 수급상황에 기초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